

## 韓國 大學 教養教育體制의 變遷

朴 鍾 哲

(崇田大 國語國文學科)

## 1

大學教育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른 論議가 진행될 때마다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제기되곤 하는 것이 大學에서의 教養教育課程과 관련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現象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금년도 大學評價에서 教養教育에 관한 것이 중점적인 과제로 등장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교양교육에 대한 論議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교양교육 自體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교양교육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教育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느 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건간에 당대의 時代的 潮流, 특히 科學文明의 發達과 精神文化의 發展에 따라 성숙되는 學問的 發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教育도 그 質的인 변모를 외면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教養教育도 그것이 教育이라는 점에서 이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교양교육에 대한 반성이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새로운 學問

的 潮流의 수용에 실패한 데에서만 야기되고 있는 것이겠는가 하는 점에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내재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것은 최근까지 제기되고 있는 교양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教養教育이나 大學의 管理에 종사해 온 사람들과 일반 敎職員들이 意識·無意識間에 구분하게 집착해 온 觀念 중의 하나는 교양교육이란 敎育法의 요구를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大學 1학년 학생들에게 과하는 非專攻必須科目”(金鎮萬, 1983, 12)이라는 認識은 “教養科目은 1학년 학생들을 위한 義務科目이고, 교양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비로소 專攻을 시작한다는 觀念과 이해는 해방 후 오늘날까지 변치 않고 고집되어 온 고정관념”(金鎮萬, p.22)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解放 이후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을 形式的·慣例的·劃一的으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게끔 유도한 것이며,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現在 각 대학에서 開設·履修되고 있는 教養教育에는 적어도 세 가지 問題點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教養科目의 教育內容이 高等學校 敎育내용과 상당히 많은 部分이 重複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程度보다 낮은 내용이 敎授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均衡 있는 교양교육의 科目配置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研究結果에 의하면 全國大學의 教養課程 履修率이 人文系 75.1%, 社會系 4.7%, 自然科學系 20.2%로서 社會科學系列이 교양교육에서 輕視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語學과 이른바 法定科目은 제외하면 純粹한 教養教育(liberal education)이 賦課될 여유가 없는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教養科目이 지나치게 1학년 또는 下級學年에 集中配定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教育內容의 重複과 더불어 싫증과 不滿의 態상이 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集中履修方法은 教育效果와 攻科目과의 有機的 關聯性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에 附加해서 教授陣 구성 문제가 다르게 된다. 즉,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教授陣이 대부분 經驗이 적거나 심한 경우에 時間講師로 充당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教授陣의 구성 방법은 教養教育의 質을 保障할 수 없는 結果가 되고 있다.”(劉仁鍾, 1975, pp. 11~12)

이러한 지적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현행 教養教育의 문제점은 ① 고등학교 教育의 반복으로 학생들의 興味喪失, ② 概論科目의 教養 내지 전공과목으로서의 성격 불투명, ③ 학생수의 증가로 인한 教育의 질적 저하”(姜信澤外, 1982, p.98)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것은 적어도 교양교육에서의 문제가 새로운 學問의 潮流의 미수용과 같은 質적인 不變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교양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책 입안자나 대학에 몸 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教養教育에 대한 認識의 부족과 그에 따라 기왕의 것에 대한 형식적 答復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교양교육과 관련된 것은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대학의 교양교육의 目標는 정당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教養課程의 學점은 그러한 目標의 달성에 충족한 것인가, 교양과정의 이러한 目標과 부합되는 教科目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學問의 時代的 潮流를 반영하고 學生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教科目的 개발과 강의는 진

행되고 있는가, 擔當教授들의 資質과 態度는 理想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助教·教材·講義室 등의 教育環境은 강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만큼 마련되어 있는가 등의 問題”(朴鍾哲, 1984, pp.6~7)들을 檢討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考는 위에서의 문제들 가운데서 教養教育體制의 變遷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양교육 체제란 결국 教養教育課程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大學에서 교양교육은 무엇을 教授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時代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의 變모를 進行시켜 왔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變모가 意味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봄으로써 教養教育에 관한 문제점들을 좀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인 것이다. 이러한 論議를 進行시키기 위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3개교의 綜合大學과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1개교의 綜合大學의 教養教育課程의 變遷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筆者가 모든 資料를 분명하게 열람할 수 있었던 서울 소재 모 사립 綜合대학의 教養教科課程의 變遷과정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他大學의 것과 비교·검토해 보기로 한다.

## 2

서울 소재 사립 綜合대학인 S大의 1966년도 教養教科課程은 <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당시엔 단과대학이었음).

上記 大學의 教科課程은 卒業에 필요한 160학점 중 교양필수 과목에만 약 40%에 해당하는 65학점을 요구하고 있어 학점수에서 미국의 하바드大學(40%), 미네소타大學(45%), 콜럼비아大學(37%), 日本의 大學(45%)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大學의 평균 30%(신규범外, 1982, p.128 참조)에 비하면 훨씬 높은 비중을 教養教育에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대학 教養教科課程의 특징은 英語와 第2外國語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는 哲學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教養教科의 구성비율로 환산하면 英語 24.6%, 第2外國語·體育 이 각 12.3%, 哲學 18.5%, 國語 9.2%, 自然

〈표 1〉 사립 S大學의 1966년도 敎養敎科課程

과 목 명	학 점 수
國語 I·II	6
英語會話 및 講讀 I·II	10
英語會話 및 作文 I·II	6
自然科學概論	3
自然科學名論(數學·物理·化學 中擇 1)	3
哲學 및 形而上學概論	3
人間哲學	3
近代 및 現代哲學概論	3
倫理學	3
民主主義의 起源	3
現代經濟構造論	3
現代社會原論	3
第2外國語 I·II(獨·佛·羅·英 中擇 1)	8
體育 I~Ⅳ	8
합 계	65

科學 9.2%, 歷史·社會·經濟 각 4.6%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先進外國의 言語와 文化의 이해를 도모하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外國語와 大學에서 전공 학문을 이수함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도구과목인 國語·英語·第2外國語가 46.1%, 엄밀한 思考能力과 냉철한 分析能力을 배양하고 모든 學問을 종합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며 모든 知的 行爲의 바탕을 형성해 주는 學問으로서 人文(間)敎育의 핵심을 이루는 哲學이 18.5%, 인접하고 있는 他學問 영역에 대해 기본적인 理解를 기쁨으로써 學問의 깊이와 폭을 증대시키며 現代 社會의 構造와 發展을 조망해 줄 수 있는 政治·社會·經濟·歷史에 23%, 기본적 체력의 향상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전통적 학문 목표인 知·德·體 三位一體를 달성기 위한 體育이 12.3%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構成은 당시 우리나라의 大學들이 처해 있었던 현실과 여건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現代의 社會가 大學으로 하여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가치를 생산하지 못

하는 ‘理想’의 世界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現實生活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敎育에 봉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大學敎育의 근본목표가 갈등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大學 敎育目標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대학들에서도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나라 大學의 興件은 專門家의 양성을 學部에서보다는 大學院 과정에서 하고 있는 美國과 같은 나라와는 그 사정이 사뭇 다르다. 아직 대학원敎育이 외국과 같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현 실정에서 전문가의 양성은 당분간 학부과정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학부에서 전공과정에 力點을 두지 않으면 안 될 실정”(신극범外, 1982, p.128)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大學敎育 전과정에서의 敎養敎育도 “모든 學生을 대상으로 共通的인 敎育課程을 중심으로 人間과 環境의 性格에 대한 충분한 洞察力을 길러 統合된 經驗과 成熟한 人格發展을 위한 넓은 機會를 주며, 個人의 知性和 判斷力과 價値選擇의 힘을 키워 주는 自由市民으로서 갖추어야 할 基本的인 敎育”(朴奉穆, 1982, p.191)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專門敎育을 받기 이전에 學問研究를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으로서의 敎育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대학들에 비해 哲學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大學의 理念인 自由人의 理想으로서의 원만하고 조화로운 人間性의 발달, 知·情·意가 조화를 이룬 人格體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現代 社會가 요구하는 직업敎育으로서의 大學敎育과 自由市民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敎養敎育(liberal education)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대학의 敎養敎育課程과 비교해 보면 쉽사리 간파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대학의 예를 들어 비교해 보기로 한다. 春川市에 소재하고 있는 K綜合大學의 1963년도(당시엔 단과대학이었음) 敎養敎科課程은 〈표 2〉와 같았다.

〈표 2〉의 敎養敎科目 중에서 조화로운 人間性의 完成을 목표로 한다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敎養을 위한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표 2〉 국립 K大學의 1963년도 敎養敎科課程

과 목 명	학 점 수
體 育	8
國 語	4
英 語	4
文化史	2
哲學概論	2
自然科學概論	4
數 學	4
一般物理	4
一般化學	4
植 物 學	2
動 物 學	2
합 계	40

敎養敎科目은 哲學과 文化史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學問 研究를 위한 도구과목으로서의 國語와 英語, 그리고 그 이외의 과목은 거의 전공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 과목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공 기초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學點이 哲學에 2학점, 文化史에 2학점이 배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은 敎養敎科課程에 배정되어 있는 全 學點數도 전체 졸업 학점의 25%에 불과한 것이면서 순수교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10%에 불과한 것으로 傳統的 意味에서의 敎養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의 大學이 農科를 中心으로 하는 單科大學이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代의 産業은 극도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직업교육을 철저히 한다면, 그는 결국 복잡한 기계의 한 부속품이 되고 말 것이다. 그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로 그 기술 분야는 발전할 테지만 그의 다른 능력들은 수축하여 이성적 존재로서는 타락한다. 이는 그가 맡은 바 분야 밖에서는 무용한 존재”(Newman, 1952, p. 45)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어야 했을 것이다.

또한 上記 두 大學의 敎養敎科課程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敎養敎科目 모두가 거의 필수로 지정되어 있어 학생들에 의한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大學에 갓 입학한 학생들의 大學敎

育에 대한 흥미와 지적 호기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틀에만 짜 맞추려고 했던 당시 대학인들의 획일적인 사고방식과 대학 학사운영의 경직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敎養敎育에 대한 學生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대학 스스로가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은 理論으로만 무성했을 뿐, 각 대학의 敎養敎科課程은 별다른 개선 없이 몇 년간을 유지해 왔다.

### 3

이와 같은 敎養敎科課程이 크게 변모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은 1971년도에 교련과 국민윤리론 국책과목에 의한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敎養課程의 변모가 얼마나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교련과 국민윤리가 政策科目의 하나로서 大學 敎養課程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것이 앞서 論議한 바 있는 自由市民으로서의 完成된 人格體를 목표로 한다는 敎養敎育의 理念을 실현시키는 데 어느 정도 공헌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 보아야 할 점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교련이나 국민윤리에서 敎授되고 있는 內容에 대해서는 本考에서의 論議와 무관한 것이므로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교련에 배정된 학점수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반성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주어진 학점의 범위내에서 새로이 6학점의 교련과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왕에 개선된 敎科目 가운데서 6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다른 교과목의 학점수를 그만큼 축소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現實은 국민 모두가 안보적 측면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고, 더우거나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고 나갈 오늘의 大學生들에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을 철저히 인식시키고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적 현실을 타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교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大學들의 현실적 여건에서 “教育法施行令에 나타나 있는 諸規定이나 또는 文教當局의 要請(가령 學點再調整, 새로운 必須科目의 指定, 教授內容에 대한 規制 등)은 새로운 理念에 따라 主體的으로 教科課程을 編成하려는 우리의 企圖와 一致되지 않는 수가 더러 있었다. 새로 지정된 教科科目을 일정한 學點의 테두리 속에서 소화하기 위해서는 既存의 科目이나 開設豫定의 과목을 할애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與件은 教養科目의 履修를 자칫하면 더욱 形式化·要式化하는 傾向으로 물고 나갔던”(劉仁鍾外, 1975, p.26) 원인 중의 하나에 교련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교련과목으로 요구하던 6학점이 주어진 학점내에서 그 학점에 해당되는 다른 교과목을 제외시키고 교련을 하여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졸업에 필요한 160학점 외에 교련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은 추가로 6학점을 더 이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대학의 재정이나 시설 등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며, 또한 그렇게 교과과정을 편성한 대학도 없었던 것 같다(예외적으로 江原大學校는 1982년 教養教科課程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교련에 필요로 하는 학점을 졸업에 필요로 하는 학점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구상한 바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련이 教養必須科目으로 指定된 이후의 教養教科科目들을 살펴본다면 칩사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련과 국민윤리가 정책과목으로 지정되어 大學에서의 必須教養教科科目으로 책정된 다음의 몇 대학의 教養教科課程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언급한 사립 S大學의 1972년도 教養教科課程은 <표 3>과 같았다.

1966년도 教養教科課程과 비교해 볼 때,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교양과정의 전체 學點數가 65학점에서 57학점으로 8학점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大學教育이 직업교육이어야 한다는 認識의 점차적인 확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大

<표 3> 사립 S大學의 1972년도 教養教科課程

과 목 명	학 점 수
國語 I·II	6
英語會話 및 講讀 I·II	8
영문학 강독	3
시사영문 강독	3
영어 스피치	3
영어 작문	3
영어 화술	3
영어 연구논문 작성법	3
수학 I·II	6
물리학 동론 I·II	6
생물학 개론 I·II	6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I·II	6
철학 개론	3
종교학	3
철학적 인간학	3
윤리학	3
근대 및 현대 철학사 개론	3
국민윤리	3
체육 I~IV	4
교련	6
현대경제구조론	3
현대사회원론	3
합 계	57

學院 制度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던 당시의 현실에서 급변하는 사회의 산업화에 따라 고급 산업인들을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다급했던 사회적 욕구를 大學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教養課程 學點의 축소는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57학점 가운데 교련이 6학점으로 새로이 추가되면서 슬그머니 教養教科課程에서 제외된 것이 第2外國語였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민첩하게 대처하고, 민변해지는 外國과의 접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英語 이외에 第2外國語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었을 때에 第2外國語를 教養必須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政策科目의 새로운 추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였을 것이다. 法令에 의한 새로운 教科科目의 추가는 기존의 교과목에 대한 축소와 폐지를 뜻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교과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上記의 大

學이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다른 대학들에 비해 많은 비중을 두었던 哲學科目들은 學點數나 敎科目을 과거와 같이 유지하면서 現實的 必要性이 날트 증가하고 있었던 第2外國語를 敎養必須科目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그 대학의 建學理念인 “뚜렷한 哲學의 원리를 통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따른 결과였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산업의 급진적 발달의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人間性的의 파괴로 인해 “한갓 기술과 전문지식의 소유자로서의 인간보다는 비판과 종합의 능력, 즉 이성적 능력을 가진 인간에 대한 요구가 보다 절실하게 요청”(金麗蕊, 1983, p.20)되는 현대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배터에서 나온 결과였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고전적 대학과 대중적 대학의 상충되는 두 이념의 불안한 혼합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기대의 측면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대학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대학은 대중적 전문직업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을 포함하는 대부분 대학인들의 머리 속에는 고전적 엘리트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교육 이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金麗蕊, 1983, p.19) 현상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은 다른 大學과 비교해 보면 쉽사리 간파할 수 있는 것으로, 春川 所在 국립 K大學校와 서울 所在 사립 H大學校의 1972년도 敎養敎科課程을 <표 4>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국립 K大學은 1960년대의 敎科課程에 비해 攻을 위한 기초과목 성격의 교과목들, 즉 一般物理·一般化學·植物學·動物學을 제외시키고 학문 영역간의 認識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과목들로 대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립 K大學이나 사립 H大學이나 모두 순수교양이라고 일컬을 만한 교과목에 대한 새로운 개발은 찾아 볼 수 없다. 국립 K大學의 경우 哲學概論 2학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文化史만 1학점이 증가되어 3학점으로 되었으며, 사립 H大學의 경우 국립 K大學에 비해 哲學概論이 1학점 높다는 것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와 같은 교과과정은 사립 S大學에 비해 敎養課程

<표 4> 국립 K大學과 사립 H大學의 1972년도 敎養敎科課程 比較

K大學校(敎育學部)		H大學校(人文系列)	
과 목 명	학점수	과 목 명	학점수
국 어	6	국 어	6
영 어	6	영 어	8
철 학 개 론	2	철 학 개 론	3
문 화 사	3	문 화 사	3
국 민 운 리	4	국 민 운 리	2
한 문	2	한 문	2
제 2외국어(독·불)	4	제 2외국어(독·불)	2
자연 과학 개론	3	자연 과학 개론	3
수 학	3	한 국 사 개 론	4
정 치 학 개 론	2	문 학 개 론	2
사 회 학	2	경 계 원 론	2
법 학 동 론	3	체 육	2
체 육	3	교 련	6
군 사 교 육	6		
합 계	49	합 계	45

의 전체 學點數에 있어서나 敎科目의 構成에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교양교육이란 측면에 대한 認識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4

이러한 敎養課程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實驗大學으로 전환하면서 졸업학점이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축소되고 韓國史가 다시 政策科目으로 指定된 다음에 다시 한번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졸업학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전 교과과정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고, 또한 韓國史가 새로이 교양필수 과목으로 추가됨으로써 敎養敎科課程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은 敎科課程의 수정에 따라 敎養敎科課程의 수정작업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나타난 사립 S大學의 1974년도 敎養敎科課程은 <표 5>와 같다.

이 大學은 1972년도 敎養敎科課程에 비해 7학점이 축소되어 敎養必須學點이 50학점으로 계조정되었으며, 이는 卒業에 요구되는 140학점 중 약 36%를 차지하고 있어 1966년도에 비해 약

〈표 5〉 S大學의 1974년도 敎養敎科課程

과 목 명	학 점 수
국어 I·II	6
영어 회화 및 강독 I·II	8
영문학강독	4
영어스피치	
영어연구논문작성법 } 探 2	
시사영문강독	
영어작문	
철학개론	3
종교학	3
철학적 인간학 } 探一	
국민윤리	3
한국문화사	3
서양문화사 } 探一	
현대경제구조론	3
수학 I·II	6
물리학개론 I·II	
화학개론 I·II	
생물학개론 I·II	
전자계산프로그래밍 I·II	
체육	2
군사학	6
합 계	50

4%가 축소된 것이다. 이것은 韓國史가 政策科目으로 새로이 추가되고, 卒業學點이 140학점으로 축소되면서 敎養課程의 학점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때 英語와 體育에서 2학점이 축소되고, 哲學에서 近代 및 現代哲學史 概觀 3학점이, 現代社會原論 3학점이 축소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대학의 敎養必須學點, 가령 사립 H大學이 41학점, 국립 S大學이 42학점으로 졸업학점의 약 30%인 것에 비교해 보면 여전히 敎養課程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敎養課程의 學點數는 축소시키면서 敎科目的 수는 오히려 늘림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유사한 교과목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敎養敎科目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機會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이나 흥미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면에서 선택의 폭을 가장 크게 제공하고 있었던 大學은 서울 소재 국립 S大學의 경우이다. 이 대학의 1976년도 敎養敎科課程을 보면 人文大學의 경우 國語 2, 作文 1, 韓國史 2, 國民倫理 3, 體育 4, 敎練 6, 外國語 9, 人文科學 9, 社會科學 3, 自然科學 3, 合計 42학점으로 法令으로 권장하고 있는 전체 학점의 30%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人文科學의 경우 哲學概論·一般論理學·宗教學概論·美學概論·東洋文化史·西洋文化史·史學概論·考古學概論·漢文·文學概論·言語學概論 11과목 중에서 3과목을, 社會科學의 경우 政治學概論·社會學概論·法學概論·心理學概論·人類學概論·經濟學概論·地理學概論·教育學概論 8과목 중에서 1과목을, 自然科學의 경우 數學·物理學·化學·生物學·地球科學·統計學·自然科學概論·科學史 8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선택의 폭을 가장 넓게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택의 폭을 크게 확대하여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다양한 학문의 성격을 학생들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敎科目들이 지나치게 특수한 학문영역의 기초과목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어서 학생들의 敎養을 위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 또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각 대학에서의 敎養敎科課程은 부분적인 개편을 거듭하면서 모순점들을 제거하는데 노력해 왔다. 그러면서도 敎養教育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수렴하면서 敎養課程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층적인 연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은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 K大學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 S大學의 경우일 것이다.

## 5

국립 K大學은 1982년에 敎養教育課程의 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既存의 敎養敎科課程을 연구·검토하고 새로운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大學의 敎養課程 研究委員會는 기존의 교양과정에서 교양교육의 의미에 대한 概念的 混亂과 의견의 불일치, 適合性의 상실, 學生의 요구와 관심의 미반영, 韓國思想과 文化의 미반영, 새로운 學問의 발전에 대한 미반영, 綜合性의 상실, 系列性의 상실 등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敎科課程의 편성을 위한 기본 지침을 마련한다.

- ① 새로운 社會的 要請, 學問의 潮流, 學生의 要求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 ② 中核教育課程(core curriculum) 모형을 적용하여 교육과정의 각 영역을 문제와 이슈, 또는 基本概念을 중심으로 편성
- ③ 한국의 文化傳統이나 社會現實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과목의 설정
- ④ 敎養科目의 講座를 대폭적으로 늘려 수강자가 그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강좌를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편성
- ⑤ 科目의 명칭에 강좌의 주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편성
- ⑥ 自然·社會·歷史·人生·學問에 대한 綜合的 識見이나 知的 判斷力, 道德的 責任感을 배양하도록 편성
- ⑦ 人間 理解의 모든 意味領域(realms of meaning)에 관한 교과가 모든 學生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수되도록 하여 知的 不均衡과 偏狹性을 극복하고 精神發達의 均衡이 이루어지도록 편성

이 같은 일반 지침을 마련하고 自然과 人間과 社會의 理解에 관련된 意味領域을 論理와 思考領域, 文學과 藝術領域, 自然과 社會領域, 倫理와 價値領域, 歷史와 思想領域, 言語技術의 領域, 體育과 敎練領域 등 7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을 中核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분야의 다양한 講座들을 설정하여 현재의 敎養敎科課程을 완성·실행에 옮기고 있다(後述 敎科課程 참조).

반면 국립 S大學은 敎養敎育의 性格을 ① ‘敎育받은 사람’의 양성, ② 인격 완성의 준비, ③ 역사관, 국민 의식, 우주와 세계에 대한 이해와 비판정신, 자기 표현의 기법 함양, 지도자의 소양 구비, ④ 中等敎育과 高等敎育의 연계, ⑤ 전공

을 위한 폭 넓은 敎養敎育 등으로 파악하고 기존의 교양교육을 改善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韓國史와 國民倫理, ② 國語와 作文, ③ 體育과 교련, ④ 외국어와 외국 문화, ⑤ 문학과 예술, ⑥ 歷史와 社會, ⑦ 분석적 사고, ⑧ 과학의 8개 核心領域을 설정하고 ①~③까지의 政策科目群을 제외한 5개 영역에서 각 1개 과목씩을 새로 개발하여 1982년 1학기부터 敎授를 실시한 바 있다(姜信澤, 1982, pp.98~9 참조). 새롭게 개발된 科目들은 ‘현대 미국의 사회와 문화’, ‘한국 근대문학의 이해’, ‘전쟁과 평화’, ‘현대의 철학적 이해’, ‘현대 과학의 구조’로 이들 과목에 대해 실제로 敎授한 결과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 열성적 관심, 강좌 수강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수강자들 사이의 연대 의식, 새로운 강좌에 대한 호기심 등의 면에서 이번 교양과목의 실험이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평가”(姜信澤, p.108)를 내린 바 있다. 특히 학점 취득이 다른 敎養科目에 비해 어려웠던 점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그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교과목들이 더 개발된다면 다시 수강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반응은 敎養科目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 6

물론 上記 두 大學의 敎養課程만이 절대적이거나 유일한 것은 아닐 것이다. 각 대학은 그 大學 나름대로의 敎育理念이나 목표 및 特性이 있을 것이며 또한 대학마다의 현실적 여건이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敎科課程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敎養敎科課程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認識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의 결과가 실제의 교과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의 大學들이 국립대학이어서 교수진이나 시설 면에서 여타의 사립대학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것은 “한낱 지식의 전수에만 그치는 강의가 아닌 자신의 삶을 폭 넓게 바라보



고 사고할 능력을 길러 주고 세계관을 갖게 해 주는, ~ 학문간의 구획을 가로질러서 총체적 안목으로 지식을 종합”(김광억, 1986, p.14)할 수 있는 敎科目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러한 교과목을 원활하게 敎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과 제도과 시간이라고 하는 교육여건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여건만을 탓하고 敎養敎育課程의 개선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敎養課程에 대한 개선의 노력들이 모든 大學에서 그 대학의 여건을 감안하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敎養敎育課程은 大學人 누구나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학이 本然의 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한 것이다. 끝으로 이제까지 論議하였던 4개 大學의 최근의 敎養敎育課程을 첨부하여 참고자료로 삼기로 한다. \*

<참고문헌>

姜信澤, 大學 敎養課程 改編研究, 서울大學校, 1982.  
 김광억, “외국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전국 대학(교)교양교육을 위한 원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6.  
 金麗濤, “哲學과 敎養敎育”, 大學敎育, 제 2호, 韓國 大學敎育協議會, 1983.  
 金銀萬, “敎養敎育課程에 대한 所見”, 大學敎育, 제 2호, 韓國大學敎育協議會, 1983.  
 朴奉穆, 敎育理論과 實踐原理, 學文社, 1982.  
 朴鍾哲外, 1984年度 大學 敎養·國民倫理評價報告書, 韓國大學敎育協議會, 1984.  
 신극범外, 大學 敎養敎育 運營改善에 관한 研究, 한양대 학생생활연구소, 1982.  
 劉仁鍾外, 大學 敎育課程 改善에 관한 研究報告書, 文敎部 敎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1975.  
 A.H. Newman, *The Idea of a University*, 1952.

<표 6> 國立 K大學校 1986년도 人文社會大學 語文系列(國文, 英文, 獨文)

區分	敎 科 目 名	學 點  및 時 間	1 學年		2 學年		3 學年		4 學年		備 考
			1 學期	2 學期	1 學期	2 學期	1 學期	2 學期	1 學期	2 學期	
敎	哲學의 理解	2-2-0	○								
	科學의 歷史와 未來	2-2-0	○								
	當語와 生活	2-2-0	○								
	英語練習 I (會話)	2-0-4	○								
養	獨逸 語 I	I 2-2-0 II 2-0-4	○	○							
	佛 語 I										
	佛 語 II										
科	中國 語 I	I 2-2-0 II 2-0-4	○	○							
	中日 語 I										
目	人間과 健康	2-2-0	○								女學生은 必須일
	韓國史의 理解	2-2-0		○							
	韓國美術의 理解	2-2-0		○							
	西洋美術의 理解										
	韓國音樂의 理解										
文章作法 I	2-0-4	○									
文章作法 II											

區分	教 科 目 名	學 點 要 時 間	1學年		2學年		3學年		4學年		備 考
			1學期	2學期	1學期	2學期	1學期	2學期	1學期	2學期	
教	英語練習Ⅱ(高級會話) 英語練習Ⅲ(作文) } 擇 1	2-0-4		○							
	韓國古典文學의 理解 韓國現代文學의 理解 西洋文化의 理解 } 擇 1	2-2-0			○						
	韓國史와 民族精神 歷史의 意味 東洋文化의 理解 西洋文化의 理解 } 擇 1	2-2-0			○						
	英文의 理解	2-2-0			○						
	精 神 衛 生 } 擇 1 兒童發達과 育兒	2-2-0			○						女學生은 必須임
	論理와 思考 } 擇 1 集合과 論理	2-2-0			○						
	韓國社會의 諸問題	2-2-0			○						
	生命의 起源과 本質 物質의 本質과 利用 宇宙와 地球 人間과 環境과 資源 } 擇 1	2-2-0			○						
	現代經濟의 問題 文化와 人性和社會 職爭性과 平和社會 女性과 社會 法社會의 秩序와 變動 } 擇1 (擇2)	2-2-0					○				女學生은 擇 2임
	科	人間과 倫理(國民倫理Ⅰ) 個人과 國家(國民倫理Ⅱ)	2-2-0					○	○		
現代哲學의 思潮 韓國思想의 理解 } 擇 1 美宗의 意味 教와 人		2-2-0						○			
體 育Ⅰ 體 育Ⅱ		1-0-2	○	○							
目	一般軍事教育Ⅰ 一般軍事教育Ⅱ 一般軍事教育Ⅲ 一般軍事教育Ⅳ 一般軍事教育Ⅴ 一般軍事教育Ⅵ	1-0-2	○ ○	○		○ ○	○				
	計	48	13	12 ⑩	8	7 ⑥	4 ⑥	4			

〈丑 7-1〉 국립 S大學校 1986년도 人文社會系 敎養課程

敎 養 必 須	國 民 倫 理	4	敎 養 選 擇	外 國 語	}	9
	韓 國 史	2		外 人 文 科		15
	國 作 體 教	1		社 會 然 科 科 學		3
	文 育 練	2				
		6		學 點 合 計		44

〈표 7-2〉 국립 S大學校 1986년도 人文社會系 敎養敎科目

구분	과목명	학점수	비고	구분	과목명	학점수	비고
敎養必須科目	國語	2	韓國史와 상호 대체되는 과목임	人文科學	哲學概論	3	
	作文	1			現代의 哲學的 理解	3	
	韓國史	2			一般論理學	3	
	韓國人의 歷史意識	2			宗敎學概論	3	
	近代 韓國의 民族主義	2			美學概論	3	
	國民倫理 I	2			考古學概論	3	
	國民倫理 II	2			美術의 理解	3	
	體育	1			音樂의 理解	3	
外國語	中國語 I	3	英語 I 과 상호 대체 과목 英語 II 와 상호 대체 과목	社會科學	政治學概論	3	
	中國語 II	3			戰爭과 平和	3	
	中國語 III	3			經濟學概論	3	
	英語 I	3			經濟的 自由와 平等	3	
	現代 美國의 社會와 文化	3			社會學概論	3	
	英語 II	3			人類學概論	3	
	英美成長期의 文學	3			心理學概論	3	
	佛語 I	3			地理學概論	3	
	佛語 II	3		法學概論	3		
	佛語 III	3		敎育學概論	3		
	獨語 I	3		女性과 社會	3		
	獨語 II	3		自然科學(非自然系學生)	數學	3	
	獨語 III	3			統計學	3	
	러시아어 I	3			物理學	3	
	러시아어 II	3			化學	3	
	스페인어 I	3			生物學	3	
스페인어 II	3	地球科學	3				
		自然科學概論	3				
		科學史概論	3				
人文科學	文學概論	3		現代科學의 構造	3		
	韓國 近代文學의 理解	3		科學과 環境	3		
	漢文	3	軍敎者必須科目(該系)	敎練 I	1	4개 학기 반복이수	
	言語學概論	3		敎練 II (集體訓練)	1		
	東洋文化史	3		敎練 III (部隊敎育)	1		
	西洋文化史	3					
	史學概論	3					

〈표 8〉 사립 S大學校 1986년도 文科大學 敎養課程

과목명	학점수	과목명	학점수
국어 I, II	6	윤리학 } 택 I	3
영어 커뮤니케이션 I·II	4	그리스도교 윤리	
영어회화 I·II	4	사회학개론	3
영어독해	2	인류학개론	
영어이해력연습	2	커뮤니케이션개론	
철학개론	3	정치외교개론	
철학적 인간학 } 택 I	3	법경제학개론	
신학적 인간론		인문학개론	

과 목 명	학 점 수	과 목 명	학 점 수
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 택 1 서양문화사	3	대 학 수 학 생 물 학 개 론 전자계산학 및 프로그래밍 } 택 1	3
국민윤리 I·II	4	과 학 사 삼 과 예 너 지	
체육 I·II	2		
군사교육	6	합 계	48

〈표 9〉 사립 H大學校 1984년도 인문과학대학 교양과정

학 년 기	교 과 목 명	학점-강의-실습	학 년 기	교 과 목 명	학점-강의-실습
1-1	사회과학 {사회학개론 인류학개론 경제원론} 택 1	3-3-0	1-2	영어 2	3-2-2
1-1	국민윤리 1	2-2-0	1-2	제 2 외국어 2	3-3-0
1-1	국어	3-3-0	1-2	철학개론	2-2-0
1-1	군사교육 1	1-0-2	1-2	자연과학개론	3-3-0
1-1	체육 1	1-0-2	1-2	한문	3-3-0
1-1	영어 1	3-2-2			20 17 6
1-1	제 2 외국어 1	3-3-0	2-1	인문과학 {논리학개론 언어학개론 심리학개론} 택 1	3-3-0
1-1	문학개론	3-3-0			
		19 16 6	2-1	군사교육 3	1-0-2
1-2	국민윤리 2	2-2-0	2-2	군사교육 4	1-0-2
1-2	군사교육 2	1-0-2	2-2	문화사	2-2-0
1-2	체육 2	1-0-2			
1-2	한국사	2-2-0		총 계	46